

74. 예수님께서 집승의 표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2015.05.11 – 예수님께서 캐롤 자매에게 주신 말씀

돈 – 너희들은 반드시 선택해야해.. 자기의존 혹은 나.

(캐롤) 주님, 오늘 밤에 저희 친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예수님) 그래, 기록하기 시작해라.

오늘 밤 우리의 주제는 돈이야. 너희들이 적든 많은, 돈은 환난의 날에 빠르게 과거의 것이 될 거야. 너희들은 어느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받을 거야..

살고, 먹고, 생존하기위해서 적그리스도인 오바마와 그의 행정부가 선전하는 그 표를 선택할까? 아니면 더 나은 길을 선택할까?

이러한 결정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논리적으로 보이고, 멋져보이고, 지성적으로 보이고, 분별력 있어보여. 세계경제가 붕괴되면서 모든 다양한 화폐시스템, 동전, 통화가 전 세계적인 경제붕괴로 혼란에 빠져도 '문제가 없어' 보여. 이 아이디어는 이미 작업중에 있어: 손이나 이마에 단순한 컴퓨터 칩을 이식하고 나면, 째! 문을 열거나, 장치를 켜거나 혹은 구매한 것을 결제할때 너희들의 손을 갖다대. 외계인으로 위장한 악마들이 나타나게되면 충성의 문제가 생기게 될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진짜이지만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거짓이라고 믿도록 어느쪽으로도든 세뇌시키게 될 거야.

하지만 결국은.. 나를 따르든지 혹은 사탄을 따르는 거야.. 그 걸모양이 아무리 복잡해보여도. 나는 너희들의 육체에 칩을 이식하는 것은 너희들의 운명을 영원히 봉인하는 것이라고 전에 말했어. 이것이 그 이유야. 칩에 악마의 '씨앗'이 들어있고 이 악마의 씨앗이 너희들의 육체에 이식되면 너희들의 혈류에 또다른 DNA를 방출하고, 이것이 영구적으로 너희들의DNA를 한때 네피림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변화시키고 변형시켜.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없으며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것이 너무 늦기전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고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주라고 부르짖는 이유야. 너희들이 하루 더 살기위해 부스러기 몇개를 살 수 있는것보다 참수되어 천국에서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나아.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죽든지 살든지 어떤식으로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라. 그들의 유일한 목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유일한 동기는 모든 인류에게서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고 영원히 지옥의 시민으로 전향시키는 거야. 너희들이 그들에게 아무리 충성을 맹세하더라도 너희들의 생명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반면에 너희들의 생명은 나에게 모든것의 가치가 있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구에 왔었어. 너희들이 나를 향해 간단하게 한발짝 내딛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바쳤어.

나의 친구들아, 지혜를 사용해라. 분별해라.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나의 날개 아래의 피난처로 오거라.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거야. 두드리면 너희들에게 영원으로가는 문을 열어줄 거야. 구하라, 너희들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면 너희들은 구원, 사랑, 기쁨, 평화,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을 위한 나의 사랑은 끝이 없어. 강력하고 실제적이야. 대가가 없이 무료로 주어져. 지금 나의 열린 품으로 달려와라.

에서가 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명을 죽 한그릇과 바꾸지 말아라. 나의 친구들아 오거라.

정복한 왕, 영혼들의 구원자.. 예수가.